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1차 긴급 구호팀 파견

하타이 안타키아 지역과 안디옥 개신교회에 구호물품과 구호금 전달

신속대응팀에 이어 긴급구호팀 파견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 광림교회에서 세운 안디옥 개신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후, 하타이 안타키아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던 광림교회는 다시 2월 17일(금) 1차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다. 피해지역과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긴급 구호차량을 구입해 안타키아 지역과 이스켄데룬 지역의 이재민 텐트를 찾아갔다.



긴급 구호팀은 한국에서 파송된 광림교회 목회자 5명, 선교사, 현지 안디옥 개신교회 소

속 난민 구호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스켄데룬은 한국전 때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이 한국으로 떠난 항구도시이며 이곳 또한 지진 피해가 컸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하타이 지역 사람들이 피난을 온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인과 튀르키예, 시리아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광림교회 긴급 구호팀은 지역 특성과 관계성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긴급 구호팀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임시 거처를 구하거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직접 찾아가 광림교회 성도들이 기증한 패딩, 속옷, 내의, 상비약품 등을 전했다. 또한 튀르키예에서 구하기 힘든 파스, 핫팩 등을 함께 전달했다. 구호팀은 특별히 구조 및 구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독교 공동체나 구호품 전달이 어려운

낙후 지역의 기독교인을 찾아가 물품을 전하고 있다. 이재민 텐트를 찾아다니며 구호품과 아이들에게 과자와 음료 등 간식도 전달했다. 아이들은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 말아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라는 안타까운 말을 전하며 한국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표했다.

튀르키예 기독교 인구는 매우 적지만, 조상대대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이들과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안디옥 개신교회 앞에서 주일예배
2월 19일(주일)에는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 앞에서 광림교회 긴급 구호팀, 한국교회봉사단, 그린 닥터스 등 여러 구

호단체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다.

안디옥 개신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성호 목사는 "교회는 무너졌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처럼 이곳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평신도 대표인 조지 장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로 든든히 서자"라고 했으며, 시리아 난민 출신인 아지즈 전도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로 부활할 것이다"라며 간절함을 전했다.

->3면에 계속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본문 말씀을 읽다보면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챙기는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교사들의 미혹 앞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 그리고 세상에서 신앙의 문제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상황을 예로 들어가며 그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도 아니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을 사도라 하고,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인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는가?’ 그는 어떻게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깊은 영적 체험과 말씀의 균형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체험 이후에도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고, 낙원에 올라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체험은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 때의 감동이 바울을 지금까지 달려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비한 현상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4년 전의 체험을 다른 서신에서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일 외에도 많은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발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매일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반면 영적인 체험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교사들은 신비한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득불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영적 체험은 늘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또는 신비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늘 말씀에 빚대어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

바울은 영적인 체험에 이어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고린도후서 12:1~21

1. 무익하나나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려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

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역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

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16.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9. 너희는 이 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이야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 이니라 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낫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중의 하나는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육체의 가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즉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에 뭔가 알 수 없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평면의 그림인데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렘브란트가 사시였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화가 고흐도 정신장애로 인해 통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고뇌,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린 그림들

을 보면 그림 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이 지금은 현존하는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로 끝났지만, 이들에게 문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육체적인 질병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의 가시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 우리의 무력함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포기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우리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오히려 기뻐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 약점, 나의 힘으로는 어떻

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들을 염려하는 사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염려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거만한 모습 등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 죄로 인해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염려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사랑이라는 날개 아래에는 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품는 순간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또 사랑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은 인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염려는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염려를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염려는 사랑에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름만 성되고 실제의 삶은 타락해 있으면 어쩌나,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 있으면 어쩌나 염려했습니다. 그는 이제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염려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염려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슬퍼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염려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염려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한 변화와 풍요로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면에 이어

이번 지진 직후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도 모두 광림의 성도라며 적극적으로 구호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1차 긴급 지원비 2만 불, 긴급 차량구입비 3만 불에 이어 이번 구호팀을 통해 5만 불을 지원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지진으로 인해 안디옥 개신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광림교

회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주시심을 감사드리며, 안디옥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광림교회는 2차, 3차의 구호팀 파견을 통해 계속해서 필요한 물품과 구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구호팀은 2월 24일까지 튀르키예에 머물며 안타키아를 중심으로 구호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안타키아 현지에서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PRAY FOR Türkiye · Syria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시리아,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2000년 6월, 광림교회에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 안타키아에 초대교회 이후 최초로 봉헌한 개신교회입니다





현재에 파견된 광림교회 긴급구호팀

기도제목

1. 강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신음하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2.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건물에 매몰된 생존자들이 속히 구조되며 더 이상의 아anzi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3. 강추위와 전염병의 위험에서 이재민들을 지켜주시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시켜 주소서. 구조작업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필요(따뜻한, 운송수단, 음식, 담요 등)에 따른 도움의 손길이 신속히 전해지게 하주소서.
4.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조대원과 구호팀 및 의료팀, 현지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5. 지진의 위험 가운데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광림교회 소속)와 교우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게 하시고 구호지역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교우들의 생활 터전이 속히 재건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주소서.
6. 안디옥 개신교회 난민 구호팀이 원활히 활동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주소서.

튀르키예 구호금 계좌

우리는행 1005-803-992104 (기독교대한감리회광림교회)

계좌 이체시 입금자명에 '교구 + 성명 + 터키' (예시: 1교구 김광림 성도 → 1 김광림 터키)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구호물품은 현지에서 구입해서 전달합니다.

시편 II “내 눈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023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3월 7일 ~ 5월 16일까지



“내 눈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I May See Wonderful Things
(시편 119:18)

2023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봄학기 | 시편 II
3월 7일 ~ 5월 16일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2023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3월 7일(화) 개강한다. 2023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시편II로 ‘내 눈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는 주제로 3월 7일~5월 16일까지 본당과 지교회에서 화요일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김정석 담임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올려주는 성경 문학의 진수이다. 믿음의 조상들이 천년에 걸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으로 지어진 ‘성스런 노래’이다. 시편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험한 신앙의 고백과 간구의 모음집으로 하나님의 무한성과 완전성, 의로움, 인자와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다.

시편은 1권~5권으로 분류하고, 전체 150편을 주제별로 나누어 찬양시, 감탄시, 감사시, 신뢰시, 역사 회상시, 지혜시, 제왕시, 등극시, 율법시로 구분되어 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73편의 시를 중심으로

공식 제사 때 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러한 시들은 솔로몬에게 이어져 수집과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현재의 5권 150편으로 구성된 것이다.

시편의 기록 목적은 개인의 내적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고백이다. 또한 종교행사와 공적 행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생활에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으로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갖도록 도와준다.

2023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시편 II’로 지난 학기에 이어 시편 90편~150편까지이며, 일반과정과 통신과정으로 진행된다.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유튜브 광림교회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다. 트리니티 성경공부 접수는 2월 26일(주일) ~ 3월 14일(화)까지 각 교구 전도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상희 기자

담임목사 동정



2/16	실업인선교회 임원회
2/18	남선교회 운영위원회
2/26	3.1절 기념주일
제43회 강남지방회	
은퇴장로 찬하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신앙 간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앙공동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새가족반 5교구 지구장 강다희입니다. 청년부 안에서 새가족반 사역과 청년부 SNS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청년부 공동체에 우리 새가족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가족이 될 새가족을 맞이하고 한 달의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제가 2013년에 광림교회에 처음 새가족으로 왔을 때 새가족반 속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처음 교육을 듣고 속회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매주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속장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가족반에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새가족을 섬기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가족반에 함께하게 되었고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광림교회에 처음 나오는 청년들이 새가족반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양한 직업, 지역, 나이를 가지신 분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말씀도 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한 주씩 시간이 지나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평일에 심방을 할 때에도 짧게 대답하셨던 분들이 길게 답장도 해주시고, 친해지면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청년부 교구로 등반하여 잘 정착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섬기면서 하는 것은 청년부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새가족들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좋습니다. 매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가족반에서 "광림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다"라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새가족반 사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다희 지구장(청년부)

땅 끝까지 선교하는 LFC 청년선교국

<2023 상반기 해외 단기선교> 1월 21일~2월 20일까지 진행



이스라엘 텔아비브 광장 길거리 찬양 및 전도



텔아비브 광장에서 유대인 아버지와 딸을 전도하는 모습



예루살렘지터 벤 에후다 길거리 찬양 및 전도



베트남 광림교회 겨울수련회



학용품 선물 받은 폭탄보육원 아이들

LFC 청년선교국은 2023년 1월 21일~2월 20일까지 우간다, 필리핀, 이스라엘, 베트남 4개국으로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였다. 지난 1월에 1차로 우간다와 필리핀을 다녀왔으며 이번 2월에 2차로 이스라엘과 베트남을 다녀왔다. 선교사역을 통하여 그 땅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250명의 청년이 순종하였고 35명은 '가는 선교사로 215명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스라엘 선교

지난 2월 11일(토) 새벽 5시, 네 개의 선교팀 중 세 번째로 이스라엘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었다. 14시간의 비행 후 먼저 밝게 된 땅은 경유지인 폴란드의 바르샤바였다. 그곳에서 지진과 전쟁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 이후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 옥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팀은 예루살렘에서 변화가로 꼽히는 벤 에후다 거리로 나가서 찬양과 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광림 청년들의 찬양은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복음을 듣도록 인도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종교인 마을에도 그날 저녁만큼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이스라엘 팀은 2천년 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거니셨던 갈릴리 호수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 대도시가 된 텔아비브에도, 먼 길을 오가는 버스에 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또한 캠퍼스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 젊은 세대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이스라엘에 손꼽히는 명문대인 히브리 대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교제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정운환 청년은 "캠퍼스, 시장, 역사 앞, 공항, 거리, 광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버스킹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예배의 자유함과 예배하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한편 "억눌린 듯한 그들의 표정과 행동들도 접하게 됐는데,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영적 소경 상태인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도 주셨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선교

베트남 선교팀은 2월 14일 인천 공항에서 출국하여 호치민에 도착하였다.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가장 중요한 경제 중심지이다.
이곳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광림미션센터와 협력하여 선교팀은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문화사역 및 예배사역을 진행하였고 이후 베트남 광림미션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개회하였다.

베트남 현지 사역으로는 호치민 청년들이 모인 C.L.C(Christian Leaders Church)교회에 방문하여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였다. 베트남 청년들의 찬양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며, 이후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며 나라도 인종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한국과 베트남 청년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호치민시에서 두 시간을 차로 달려 베트남 현지 고아원인 폭탄보육원에 도착하였다. 폭탄보육원은 기존에 낙후된 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광림교회 성도들의 헌

신으로 건물의 보수가 이루어져 보육원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은 '폭탄보육원에 도착하여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아이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대접하였고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 잔치와 레크레이션, 미니 운동회를 진행하였다. 또 성극과 위십 등의 문화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돌아왔다.

보육원 사역을 마친 후 베트남 선교팀은 베트남 광림교회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를 위한 수련회를 'Growing in GOD(고전 3:6-7)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베트남에서 지내는 동안 교회학교 수련회를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 아이들 마음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베트남 선교팀이 준비한 예배와 찬양, 문화 사역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중에 한 아이는 나중에 청년이 되어 광림교회 청년들처럼 선교를 다니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김연선 청년은 "이번 베트남 선교는 저와 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쁨 넘치는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은혜와 보여주신 사랑은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2023년 상반기 4개국에 단기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2023년 하반기에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한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비전에 따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2023년 아동부 제자학교 & 새학기 가족 기도회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지난 2월 18일~19일까지 이틀에 걸쳐 2023년 아동부 겨울 제자학교를 진행하였다. 이번 겨울 제자학교에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함께 하였으며, 16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였다. “제자, A WALK (함께하면 즐거워요!)”라는 주제로 한 제자학교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

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재철 목사(교육1부)는 제자학교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직업, 성격,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모두 완벽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라며 제자학교 진행 시간 동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배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당부했다.

아이들은 조별로 팀을 이루어 교회 곳곳에 있는 12코스를 돌며 임무를 수행하고 예수님의 열두제자 스티커를 모았다. 1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제자학교를 통해 광림교회 교회학교의 어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9일(주일)에는 소속 부서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이번 제자학교의 모든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였다.

<2023 새학기 가족 기도회>가 “왕의 자녀로 살라!”는 주제로 2월 20일(월)~25일(토)까지

매일 새벽 6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진행되었다. 임재철 목사는 “새학기 가족 기도회는 여러 곳에 분산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분주한 삶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 부모로 교회 안의 직분과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본질적이고 변함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라며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 되길 간구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영아부부터 고등부, 어와나, 영예부까지 많은 자녀와 부모, 교사가 함께 새벽 제단을 쌓았다. 특별히 기도회 마지막 날 자녀들은 적어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육부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다.

박희훈 기자

‘LOVE DIVE’ 2023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우고 꿈과 소망을 회복하기 위한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2월 10일(금)~12일(주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LOVE DIVE’란 주제로 260명의 학생과 교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 “서로 사랑하라”(요 13:35)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들이 학업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말씀공부와 코스게임, 보드게임, 명랑운동회, 축구 등 활동을 하며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임재철 목사(교육1부)는 ‘예수님을 향해 LOVE DIVE’란 제목으로 집회를 인도하며 “사랑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다.

둘째날 박지상 목사(교육2부)는 “삭개오가 갈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 나무에 올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듯이, 우리도 STOP의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ONE STEP을 내딛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등1부 박민서 회장은 “둘째 날 저녁 집회 기도시간에 누구도 일어서라고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목사님께서 크게 주어를 외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꼈습니다. 수련회에 다녀온 후 제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예수님과 친해진 것 같고, 제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수련회 전부터 교사들은 ‘100시간 기도운동’을 진행하며, 하루에 한 시간씩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내용을 카톡방에 공유하여 은혜를 나눴다. 손수 간식을 준비하고, 기도시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한명 한명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마지막 날 주일예배 시간에 학생들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다짐했다.

소현수 기자

교회학교 근속교사 ① 어와나 교육위원회



어린이 4부 예배로 시작해 어와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35년간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화정 권사는 “봉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라고 자부한다. 어와나 예배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어와나 박화정 부장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의 지름길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획목사님의 소개로 어와나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뭔지 모르고 시작했던 어와나가 벌써 13년이 되었어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말씀을 외우고, 논술을 써내려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느낀답니다. 어와나 아이들 믿음이 권사님, 장로님들 못지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곳을 봉사의 처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70세가 될 때까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 이후 죽는 날까지 어와나를 후원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박화정 권사는 6년 전 어와나 부장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금 깨닫게 됐다고 고백한다. 예전에는 새신자가 늘어나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면, 요즘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어와나 시절에는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성장하면서 실족해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거나, 아예 성전에서 자취를 감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한다.

“이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어와나를 졸업한 뒤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을 따져 보면 피라미드처럼 위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중고등학교 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어와나에서 신앙생활의 다지기를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잡아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데, 현재 선생님이 부족해요. 어와나는 1:1로 말씀 외우는 것을 도와

줘야 하기에 많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이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돕고, 아이들과 말씀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어와나 교사로 지원해 주세요!”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박화정 권사.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봉사’ 였다고 회고한다.

마지막으로 35년 근속교사로 뉴스레터 지면에 소개되는 것이 축스럽지만, 봉사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결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혜선 기자

목회현장

‘예수님의 마음으로’



김정규 목사(서울대본당병원)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동안 영혼 구원과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 주심으로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놓임 받아 건강하게 사는 인간,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자애로운 뜻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려면 기본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1) 악에서 떠나 은혜 안에 살아가길 힘써야 합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면 정신과 영이 병들게 되므로 악에서 떠난 삶으로 영혼이 항상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3:7-8 참조)
- 2)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님은 더러움을 소멸하는 영으로서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을 도우사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십니다.
- 3)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활동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이요, 건강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 원목의 주된 사역은 병실에 입원하신 환자를 심방하는 일입니다. 환자 가운데는 의로직 도움으로 순탄하게 회복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병이 잘 낫지 않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의료행위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예민해져 있는 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의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이지 않아서 깊은 상심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참 소중한 분들이기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대하신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해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42절에서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듯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낫기를 바라셨고 결국, 환자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 완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믿으며,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환우들의 건강 회복은 물론 영혼 구원과 천국 소망을 이루도록 원목으로서 사명을 다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광림남교회

하나님 사랑에 빠진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광림남교회 중고등부는 지난 2023년 2월 17일(금) ~ 2월 19일(주일)까지 2박 3일간 요한복음 13장 35절(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의 말씀을 가지고 ‘LOVE DIVE’라는 주제로 광림남교회 중고등부 예배실 및 교육관에서 겨울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LOVE DIVE라는 주제 안에 두 가지 주제를 잡고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의 회복입니다. 첫날 집회 말씀과 관련 둘째 날 많은 질문과 생각들을 던져주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다시 한번 새기며 조별 나눔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주제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조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협력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학생들의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한 학생은 “집회시간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려웠던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였고, 다른 학생은 “집회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던 수련회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새로운 친구들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



어서 행복을 선물 받은 것 같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교사들도 수련회를 통해 워십팀과 함께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반별 품앗이 기도회, 전체의 기도회를 통해 함께 했던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 믿음의 성장을 엿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온전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많은 기도와 격려해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16교구

모이기에 힘쓰는 마리아선교회



지난 1월 13일 저희 가정을 성전 삼아 16교구 마리아선교회 연합모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2023년에는 마리아선교회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2022년 일치된 순종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함께 바자회도 참여하였고, 주께 드리기로 한 서원헌금들을 차고 넘치게 올려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에 힘들때 매일 여선교회 윌례회를 선교회 장소로 사용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선교회, 참여의 기

쁨을 아는 선교회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드립니다.

16-1 마리아선교회장 김새롬 집사는 “뜨거웠던 작년 한해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던 제가 광림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리게 된지 5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속회로 모이기에 열심을 내신 송승임 권사님을 비롯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속성으로 저를 단련하시고, 집사로서 개체 선교회에 세워 주셨습니

다.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따랐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씀으로, 물질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일상과 예배가 정상화되며 저희 선교회원들의 건강과 형편이 모임에 부족함 없게 해주신 하나님. 만남을 준비할 때마다 제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매달 선교회 모임을 공지할 때마다 ‘yes’라고 대답해주는 선교회원들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김근혜 집사님과 이주현 성도님이 16-5로 나뉘지며, 헤어짐의 아쉬움이 크지만 주님 주실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리라 믿고,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선교회’라는 이름처럼,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하나님 지으신 독창성을 가진 선교사로서 성장하는 저희 마리아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젊은 마리아 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교회에 참여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일에 선행도 전 받는, 서로를 견인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말씀 인도해주신 임성연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상민 권사(16교구)

본당 예배실 모습 담은 대심방 선물



성전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 상징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기쁨을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
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시

84:1)라고 고백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
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이다.

2023년을 맞아 광림교회가 마련한 대심방 선
물은 교회 본당 대예배실의 거룩하고 아름다
운 모습이 담긴 LED 조명등이다. 아래쪽 받
침대에는 교회창립 70주년 엠블럼과 광림교
회 로고를 새겼고 그 위에는 십자가를 중심
으로 파이프 오르간과 양쪽으로 펼쳐진 웅
장한 스테인드글라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보인다.

하루의 시작을 대예배실의 모습을 보며 성
전을 생각하는 예배자로, 하루의 끝 역시 조
명등을 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바라는 기도자로 세우지는 의미가 담겨있다.
올해는 대예배실을 가득 메운 광림의 성도들
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찬양드릴 때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같
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심방 선물 사진 속에 보이는 대예배실 창문
을 자세히 보면 모두 아치형 창인데 원과 사
각형이 합쳐진 모양이다. 원은 하늘을, 사각
형은 땅을 상징하는데 성전의 창문에 담겨진
의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되어 언제나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을 품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때 임마누엘

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성전
에서 전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며 말씀 속
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
심을 깨닫게 된다.

광림의 성도들은 교회 대예배실 모습이 담
긴 대심방 선물 LED 조명등을 기쁨으로 받
고 있다.

올 한해도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
방에 증거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성도들은
성전 예배에 적극 동참하고, 풍요로움을 함
께 나누며 이웃과 열방에게 축복을 흘려보
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유병권 기자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③ 기드온선교위원회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김영기 권사



지난해 12월 28일 당회 구역회에서 담임목
사로부터 기드온선교위원회 김영기 권사
(18교구)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기드온선교위원회(위원장 박영노 장로)는
이단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세속적
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 못하게 질서
를 유지하는 사명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차량 주차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김영기 권사는 기드온선교위원회 초창기
부터 봉사를 한 성도에게 권유를 받고 13
년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는 기드온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로서 5년째 봉
사하고 있다.

기드온선교위원회 회원들이 하는 일은?
교회의 한정된 공간 안에서 되도록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회 주차장은 사회복지관 지하1층에서 6
층까지 그리고 본당 지하를 비롯 통로 주
차까지 합하여 약 1,200대를 주차할 수 있
다. 그렇지만 주일에는 여전히 부족한 편
이다. 기드온선교위원회 회원의 헌신으로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
며, 교회 외부행사나 주중에도 필요할 때
는 주차봉사를 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주차안내 할 때는 차량 안에 누가 탔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다. 언제인가 비가 내리
는 날 안내를 했는데 나중에 내리는 사람
을 보니 담임목사님이었다. 항상 봉사를
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봉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기드온 봉사를 하면서 마음에 와 닿는 성
경말씀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한다는 사명
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 때 은혜가 된다.

주차 안내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주일 3부예배 때 사회복지관의 공연장에
일찍 오는 관객들이 많아서 복잡할 때가
 많으며, 현재 지하 4층 밑으로 주차 여유
대수 표시 오류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에는 차량의 매연 등으로 공기가
매우 탁해서 정기적으로 바닥 물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드온선교회원들은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은혜롭게 봉사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득섭 기자

주 관 광림 실업인선교회 | 코리아아츠그룹

하나님! 튀르키예 지진 난민을 도와주소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난민돕기 사랑의 음악회

일 시 2023년 2월 26일(일) 오후 5:00

장 소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출연진 "특별출연 서문예 K합창단", 로랑빙(유지컬 배우), 문희옥(트로트 가수), 류정필(테너),
하민택(테너), 곽상훈(바리톤), 김범우(가수), 자원(소프라노), 강민성(소프라노), KON(바이올리니스트),
김대민, 김채은(프로듀서), 김정택(SBS 팝 오케스트라)단장

진행 이채유 아나운서 합창지휘 로즈송 예술 총감독 최호현 문의 실업인선교회 (02-544-4568)

주최 | 후원 시더스 그룹, 서울문화예술원



“소명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을 보인 장로들”

2월 26일(주일) 강남지방회에서 <은퇴장로 찬하예배> 열려

2월 26일(주일) 제43회 강남지방회에서는 광림교회 시무장로로 헌신한 5명 장로의 <은퇴장로 찬하예배>가 드려진다. 많은 성도들과 지방회원, 구역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김경래, 이상용, 김일환, 한채수, 송병제 장로가 은퇴식을 갖는다. 찬하예배는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아름답게 은퇴하는 뒷모습에 감사를 전하며 축복하는 자리이다. 광림교회 장로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5명 은퇴 장로의 감사글을 전한다.



김경래 장로

감독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장로의 귀한 직분을 받은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장로가 되는 것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부족한데도 감독님과 담임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

며, 여러 위원회에서 일할 때에 함께 하였던 믿음 좋은 교회학교 학생들, 교사들, 청년들, 성가대원들, 의료선교회원들, 위원회 위원들,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오히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깨우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은퇴하신 모든 선배 장로님들과,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훌륭한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며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감독님과 담임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가족들, 아내 한미란 권사와 아들 부부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용 장로

“이제 교회 일 좀 하셔야지요?” 2007년 12월 24일 면담에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후 지난 15년 동안 장로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감당했을까? 새로운 부서를 맡을 때나,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서

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독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에스토니아교회 창립 10주년행사, 일본 고마가네 신천장로 연수, 애즈베리대학교 기숙사 봉헌, 뉴질랜드 광림교회 방문, 중국 심양 조선족교회 방문,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 기공식 등... 또한 담임목사님이 감독으로 당선되시는데, 감독직을 수행하시는데 연회 협동총무로서 도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장, 음악위원장, 경조위원장, 국내선교위원장으로서 봉사할 때 도와주신 많은분들과 늘 기도로 도와준 아내 임문영 권사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올 해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담임목사님과 함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제 갈릴리성가대로 돌아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김일환 장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광림교회의 장로로 세워주시고 남교회에서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어 교육부에서 4년, 재정부에서 1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교회 교육부장으로 2010~2014년 동안

교육부와 청년부를 맡아 기도하며 교육부가 크게 부흥되어 500명을 돌파하여 교사들과 크게 기뻐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재정부에서 2014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0년동안 감당할 때 감독님께서 부족한 종을 안수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로임직동안 남교회에서 감독님과 담임목사님을 잘 모실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남교회 재정부에서 현금계수와 회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도와주신 김용명, 김덕수, 이창화, 박명희, 김진국, 김두레, 민경숙, 박상수 권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와 후배 장로님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채수 장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를 장로직분도 잘 마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난 40여 년간의 직장과 신앙생활은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로 이끌어 가셨듯이 그 광야생활 동안에 저를 단련하고 연단시키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없음을 잘 알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광림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 많은 교인들, 임원들 그리고 장로님들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로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송병제 장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장로로 기름부어 세워주셔서 남성성가단, 기드온선교위원회, 경조위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들을 통하여 도움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하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 은퇴는 하지만 시무장로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은퇴 장로로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보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이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헌신과 일치된 순종으로 이루어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본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